

# 農夫歌에 나타난庶民意識

—19C의 社會的 背景을 中心하여—

金 基 隼

<目

次>

- |                  |                        |
|------------------|------------------------|
| 1. 序(導論·農夫歌)     | ① 모순된 重農思想과 身分層의<br>自覺 |
| 2. 農民層分化와 時代背景   | ② 農業에의 執念과 安定追求        |
| ① 農政政策의 變質       | ④ 結論                   |
| ② 價値觀의 變質과 身分層분화 |                        |
| 3. 農夫歌의 內容       |                        |

## 1. 序(導論·農夫歌)

우리나라는 上代부터 農業을 기간산업으로 하는 農耕사회를 구성하여 왔기기에 후대에 내려 갈수록 邦本이라는 思想은 儒教國家의 농정이념으로 생각하여 왔다. 따라서 한국 고전 문학 作品중에서 농촌을 소재로 한 作品으로 『권농시조<sup>1)</sup>』와 『권농가사<sup>2)</sup>』들을 찾아 볼 수 있다. 上代부터 農業을 生業으로 한 우리 조상들이기에 農家의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온 법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곧 농업종사자는 선비 아닌 평민이기 때문에 시대를 소급할수록 희귀해 짐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소개되는 농가월령이나 농부가 등<sup>3)</sup>은 모두 18C~19C에 창작된 것이다. 이때는 조선왕조의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당시 지배 계급으로 형성되어 있던 소위 양반계급<sup>4)</sup>.

1) 沈載完編:「校本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1972).

2) 李相寶等編:「校註 歌辭文學全集」, 精研社(1961).

3) 최근 소개된 農村歌辭中 農夫歌만 들어본다면

① 尹禹炳作 農夫歌      ② 梁在日作 農夫歌

③ 崔乃顯作 農夫歌      ④ 作者未詳의 경주농부가

⑤ 金秋湖作 農夫歌 等과 月令體인 農家月令歌(丁學游作)를 찾아볼 수 있다.

4) 여기서 양반은 원칙으로 東班(文官)과 西班(武官)이라는 官人們만을 意味하지만 朝鮮朝의 儒教의 教條主義는 비롯 官人이 아닌 一般士林까지도 여기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일 것이다.

의 양적인 팽창으로 사회 계층구조의 변질을 가져오게 되어 도시의 선비가 농촌에 정착하게 된다.

본고에서 자료로 삼고 있는 농부가는 「註解歌辭文學全集」에 수록된 농부 가와 내용이 다른 가사로서 忠南 論山郡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미 姜銓燮 교수에 의하여 자료로 발표된<sup>5)</sup> 바 있다. 이 「농부가」는 총 16장으로 된 필사본으로 매면 3단 12행으로 기사되었는데 총 366행 549句로 된 장편가사다. 필사본의 「농부가」 제목 아래 「신수 정월 병동작」이라 補證되고 필사 연대는 光武二年(1898)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부가」의 作者는 구한국말집의 지자 省齋 尹履炳(1855~1921)의 伯氏인 勸齋 尹禹炳(1853~1930)氏로서<sup>6)</sup> 作者나이 29세 때인 고종 18년(1881)에 시국의 불안정과 농부 천대함을 보고 농부의 신고와 농사의 소중함을 장편 가사체로 서술해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本歌는 19C 初 耘遁 丁學旂(1786~1855)가 지은 「농가 월령가」와 같이 우리말로 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에 보다 接近한 農歌라는데 意義가 있다. 本歌가 19C末의 페막한 농촌 생활의 이면을 표현하고 時俗의 賤農思想과 나아가서 宗廟(國家)의 危殆로움을 경고하는데 그 창작 의도가 있기에 本고에서는 王丙兩亂을 겪은 이후 사회구조의 변혁과庶民意識의 변모를 사회적인 측면에 照應해서 고찰 하고자 한다.

## 2. 農民層 分化와 時代背景

### 1) 勸農政策의 變質

李朝의 봉건국가는 농민을 수탈하지마는 결코 보호 육성을 망각하고 있지 않는 않았는 것 같다. 李朝시대 太祖 4년(1395) 농사는 만사지본이고, 簿田은 퀸농지본이라 하여 서적전과 동적전을 설치하여 임금이 몸소 퀸농에 경주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世宗 10년(1531)과 26년(1547)에는 퀸농교문에 대한 영을 내려서 각 지방의 수령과 퀸농관은 항상 순찰하여 농경을 득려하고 治農의 공로를 계일 우선하여 퀸농정책 성과의 기준을 삼았

5) 姜銓燮: 「農夫歌辭 對話彙」, 大田實專論文集 第五輯 (大田實業高等専門學校, 1974).

6) 자료 제공자는 제시한 尹氏 家藏의 「坡平尹氏世譜(略)」에 보면 「禹炳 字致範 號勸齋 有學行, 哲宗 癸丑 四月一日生 庚午 正月七日卒, 有(遺)集 詠農夫歌」라 보이고, 또 제목 아래 「신수 정월 병동작」(辛巳 正月 痘中作)을勘案한다면 이 歌辭은 尹勸齋작으로 볼 수 있으나 表紙의 題簽자리에 필사내용과 필자가 다른 「閭巷風謠」라고 적혀 있어 원작자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고 한다. 英祖 후기에는 고상안, 유헝원, 이 익, 이수광, 정약용 등 실사 구시의 실학자들에 의해 농본사상이 고조됨을 기록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영조대왕은 제위 62년간에 50회에 가까운 훈농교서를 내리어 실로 보기도 훈 농정책을 강조하였다. 또 王은 훈농관을 두려하여 농촌을 순무하게 하며 자신이 직접 親耕하였고 5月이 되면 典農壇에 올라가 觀麥之禮를 행하였으며 훈농관을 농촌에 내 보내어 모심기를 두려하고 황무를 대여캐 하며, 농기 구와 수차를 제작해 주는 등 民生을 돌보았다. 이러한 일은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과 함께 劣惡한 生產조건과 훈농정책의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진 일이라 하겠다. 이같이 역대의 王들은自身이 직접 농사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15C 과전법 시행 이후부터 뜻대로 되지 않고 농민들의 離農과 함께 농민층 분화가 일기 시작한다. 15C에 실시된 조선시대의 科田法은 私田의 확대를 막고 중앙 집권적 토지 저배 관계를 재정비하려는데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전법 자체내에 이미 私田확대요인 이 내포되어 있다. 즉 국가로부터 土地를 지급받은 계층의 사전확대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특수 계층의 私田확대 경향은 16C 말에 일어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하여 더욱 현저하게 진행되었고, 반면 농민들은 토지 상실 내지 소작인화가 촉진 되었다.

15C의 과전법 시행과 16C 말 임진왜란으로 농민생활의 궁핍화 현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당시의 文學作品으로 박노지의 누항사를 예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朴蘆溪가 지은 詩歌에는 단편적이나마 가장 전실한 농민에 대한 의식, 농민 문학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sup>7)</sup> 특히 脣巷詞에서는 임란 이후의 백성들의 궁핍상과 그 지양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훈농문학적 성격을 짚고 있다고 하겠다. 17C 중엽의 이조사회는 임진왜란의 상처가 치 아물지 않아서 농촌사회가 극도로 파폐한 원인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수 계층의 토지 廣占과 농민의 토지상실 내지 소작인화로 농민 생활의 궁핍화는 극도에 달하고 있었다.

「中央에서 멀리 떨어진 地方의 田土가 넓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서을 士大夫의 農莊이고 諸宮의 折受地이므로 地方의 小民은 송곳 세울만한 땅을 가진 자도 적다. 이로 말미암아 地方농민의 의식은 모두 소작에 의존하게 되는 바 私稅와 公賦를 바치고 나면 자기 차지는 생산량의 5분의 1도 못된다. 그러므로

7) 朴仁老 作品中 褒農的 경향이 빤 것은 「戴勝吟」을 비롯해 「耕田歌」(十首)와 「陋巷詞」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作品이라 하겠다.

#### <4> 嶺南語文學(第5輯)

小民으로서 農事를 지어 먹고 사는 者는 그 해를 살아나갈 財貨가 없어서 언지나 春窮期를 당해서는 씨앗과 農糧을 모두 私債에 의존하게 되었다.」

위의 인용예문은 18C 농촌에서 출생하여 일평생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온 농촌 유생 李日章이 1727년(영조 3년)에 民生의 疾苦와 時政의 畏懼에 대한 당시 농촌실정을 체험적으로 파악하여 王에게 올린 상소문 내용의 한 구절이다.<sup>8)</sup> 이것은 특수 계층의 사전확대 경향으로 농촌은 만성적인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대다수 농민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方便으로 私債가 성행이 되었는데 銅錢 아니 米穀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민에게는 米穀의 私債가 크게 어려움을 당장 가져오지 않았지만 동전 사용 이후부터는 소위 부호, 거실의 고리 대금업이 조장되어 화폐자본화한 고리대자본의 성장 발전이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農村社會에 끼친 화폐 경제의 영향을 체험한 李漢道 사회 경제적인 폐단으로 지적하여 비판하고 있다. 특히 동전의 유통보급으로 부호들의 고리대업이 성행하여 그들의 차취 대상이 된 영세 농민은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그들 중 80~90%가 농토와 집을 잃게 되었다고 하리만큼 농민층의 몰락 내지 농촌사회의 문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sup>9)</sup>

이러한 동전 유통의 폐단은 일부 관청의 음성적인 고리대행위를 조장하거나 심지어 농민 중 그들 스스로가 고리 대업을 통한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전답과 가축을 팔고 土地를 이탈케 하므로 농민층의 몰락과 이농자가 속출하게 되고, 농촌 사회의 문화를 촉진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農事를 天職으로 알아 왔던 농민들이 영리감각과 투기심이 보다 급격하게 성장 발전함에 따라 농촌을 등지게 하였으며, 한편으로 특수계층에게는 토지의 무제한적인 사적 소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이상적인 모든 제도는 무너지고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기 시작했다. 즉, 국민의 부역이 결제가 없으며 빈부의 차이는 커져가고 특수층이 토지를 확대하여 이익을 독점하기에 法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인심마저 들뜨고 풍속은 자박하게 변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 농민의 생활상을 柳馨遠은(1622~

8) 〈承政院 日記〉 636冊, 英祖 3年 閏3月 16日條 참조.

9) 〈星湖僊說〉上 人事門·錢寒條 참조.

1770) 이상적인 토지제도에 대한 의견을 곁들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비록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王이 있어도 만약 토지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백성의 생업을 안정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부역도 고르게 하지 못할 것이며, 호구의 수를 밝히지 못할 것이요, 군대를 정리하지 못할 것이며, 총사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 형벌을 줄이지 못할 것이요, 뇌물을 막지 못하고 풍속을 두텁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치나 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리 없는 것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토지는 천하의 근본이므로 근본이 바로 서면 모든 제도가 온당하게 되며, 근본이 문란하면 온갖 제도가 따라서 마땅함을 잃게 되는 것이니 실로 정치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자가 아니면 天理와 人事의 이해득실이 여기에 귀결됨을 알지 못할 것이다.」<sup>10)</sup>

「유형원」이 말한 토지는 곧 농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민이 힘써 일하면서 사람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재화를 얻게 되고 온갖 제도를 바로잡게 하는 근본이 되므로 농업은 邦本으로서 임란의 민족적 상처를 셋고 농촌을 부흥시키려는 의욕적인 심정을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각종 제도의 보순성을 제거하는 개혁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권력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당시의 사대적 요청에 결감하고 농민들의 결에 살면서 농촌부흥의 방향과 토지 및 제도 개편의 방법론을 연구하여 실천에 읊기기도 하였던 것이다. 유형원을 포함한 이 당시 實學者들은 한결같이 耕者有田의 원칙하에서 모든 농민들에게 제도적인 토지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星湖 李瀆(1681~1763)은 王·丙兩亂의 전란을 겪음으로써 대토지 소유체가 다시 발달하여 부의 폐증 현상이 급격히 이루어져 간 시기에 나온 실학자로서 그는 부호에 의한 토지의 독점을 막고 모든 국민이 그것을 끌고루 점유할 수 있는 토지 개혁론 즉 均田論을 주장하고 있다.

균전론은 일정한 넓이의 땅을 永業田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한하여 매매를 허락하고 토지 소유량이 영업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토지의 매매를 법으로 금하자는 이론이었다. 이것은 앞서 유형

10) 柳馨遠: 〈磻溪隨錄·田制 上〉

「雖有原治之君若不正田制則民產終不可恒賦役終不可均戶口終不可明軍伍終不可整詞訟終不可止刑罰終不可省賄賂終不可遏風俗終不可厚如此而能行政教者未之有也夫如是者其何故乎土地天下之大本也大本既舉則百庶從而無一不得其當大本既棄則百庶從而無一不失其當也苟非深識治體者亦安知其天理人事得失害之歸至於此哉然。」

원의 이론과 기본적으로 같은 데도 위에 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농민들의 농토 유실은 곧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시기에 농촌사회에 영향을 미치어 농토를 잃어 버리기 때문에 금속화폐의 유통을 반대하는 이론도 대두되던 시기였다. 동전의 유통보급으로 급격히 성장·발전한 상품, 화폐 경제와 고리대 자본은 거의 자급자족이던 농촌사회에 침투되고, 이로 말미암아 토지를 이탈하게 된 대다수 농민들은 상공업 혹은 광산 노동자로 종사하게 되고, 심지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도적집단에 가담하여 지배층에 저항하는 반체적 성격이 18C~19C에까지 발전되었고, 이것이 이조말엽에는 全國에 파급되어 民亂에 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와 같이 농민층의 분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조사회의 전통적인 생산양식과 가치체계가 과전법에 의한 토지제도 및 화폐경제로 권농정책이 변질을 가져오게 되어 더욱 심하였다. 다시 말해서 농민층의 분화는 전통적인 조선사회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생산성을 低減시키고, 富益富貧益貧이라고 하는 일부계층에 의한 사회재부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당시 백성을 邦本으로 삼고 농업을 기본산업으로 적극 장려하며 사회재부의 배분에 있어서 均產主義를 주장해 왔던 사람은 主로 양반관료자나 실학자들, 그리고 地方儒生들은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토지 소유관계를 중심한 농민층의 분화 및 離農現象은 17C 이래의 농법 개량이나 농업생산력의 발전 및 이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경영확대 유통경제의 발달과 농업경영 방식의 변화 즉 상업적인 농업의 발달, 봉건적인 지배층이나 지주층, 부농층의 토지집적 및 인구성장에 따르는 경지의 부족과 편중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런 현상은 19C에 이르러서는 더욱 격심하여지고 따라서 토지소유에 있어서의 격차는 더욱 현저해지고 있었다. 양반지배층의 토지확대 경향으로 인하여 토지는 소수의 부농층에 의해서 소유되는 바가 점점 더 심해지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영세한 토지소유자나 無田농민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농민들은 지주층의 농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민이 되거나 그것도 여의치 못한 농민은 노임 노동층이 되거나 혹은 상공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sup>11)</sup>

11) 金容燮: 「18·19世紀의 農業實情과 새로운 農業經營論」, 大東文化研究 第九輯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2), pp.4—5.

이상과 같이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농업은 농민층의 문화와 토지확대 경향으로 인한 국가재원의 불실의 근본적인 변질은 18C 이후 이조 양반사회가 나타낸 하층계급과 상층계층의 부적응에서 오는 간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토지생산력에 의존하고 있던 봉건적 농업경제가 토지제도의 모순과 토지황폐 등으로 인한 생산력의 감축, 양반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私田이 확대됨에 따라 生産人口가 상대적 감소와 계급구조간의 모순이 이조 후기 사회의 신분제도 붕괴와 함께 극도로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 2) 價値觀의 變質과 身分層의 붕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경제기반을 거의 농업생산에 의존하고 있던 이조시대의 지배층은 중농사상을 보급하는 등 농업의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중농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에 전념할 것을 권장했고, 또한 대다수의 백성은 농업을 天職으로 알고 농사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농촌소민들은 의식을 위한 생활 필수품을 농경을 통해 얻기 위해 어려서부터 농사에 힘쓰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15C의 과전법에 의한 私田확대, 임란이후의 농민생활의 궁핍화와 함께 동전이 유통 보급됨에 따라 화폐경제가 농촌사회에 파급되고 이에 농민들은 영리감각에 민감하여 농토를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8, 19C에 와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16C 때만 해도 종종 11년(1516)에 이미 농민들이 본업을 버리고 산공업을 뽑아 서울로 모여드는 일이 많았는데 대하여 왕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sup>12)</sup> 금속화폐의 유통으로 인한 도시의 상업인구가 격증하게 되는 것은 일시에 많은 이익을 얻어서 호의호식하게 되는데 맙흘리면서 힘들여 농사짓는 사람들은 노예처럼 멸시하고 서로 상종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생각해 왔다는데서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도적을 맞거나, 홍년을 만나 장사에 실패하게 되면 꾼 빚을 다 갚지 못해서 허덕이게 되고, 다시 마음돌려서 농사를 짓을려고 하나 그것마저 쉽지 않아 마침내 가산을 정리하고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sup>13)</sup>

옛부터 民을 邦本으로 생각하고 농업을 天職으로 알고 安分해 왔던 우리

12) 中宗實錄 卷二十五, 中宗十一年五月 辛卯條。

「上曰 農本也 工商末也 今百姓 舍本逐末者多 外方之人多聚 京中 爲工商之業 而務農者少。」

13) 〈星湖僊說〉 上 人事門·米賤傷農條 참조.

## <8>嶺南語文學(第5輯)

의 농민들은 위정자들의 중농정책에는 아랑곳없이 영리 위주의 직업을 바꾸는 것을 쉽게 하였다. 이것은 곧 농민의 전통적인 직업관념이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농민들의 전통과 인습의 콜레를 벗어나서 실체적 가치를 추구하려 하는 그들의 전통적 가치 관념상에 일어나는 발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념의 변화로 인하여 관리들은 농민착취가 심화되고 人心이 협어 지면서 수적으로 늘어나는 양반 사회까지 굽주림에 허덕이게 하였다.

18C에 오면서 양반신분층의 급격한 수적인 증가 현상으로 신분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양반제급의 양적인 행창으로 토지생산력을 가지고 사회발전을 총족시키지 못했을 뿐더러 국유제에 입각한 토지제도도 그 운영상 특수계층의 免脫田이 확대되고, 대토지 소유경향으로 인하여 토지제도는 변모되어 마침내 봉건사회는 19C에 와서 해체과정에 접어들고 있었다.<sup>14)</sup> 그리고 농민들을 포함한 하층구조의 변질과 모순앞에서는 군주와 귀족적 관인을 中心으로하는 유교적 통치체제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관리능력과 창조력을 이미 잃고 있었다. 농민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질을 가져온 것은 양반인구의 증가에 또한 원인이라 하겠다. 이 조사회의 양반들은 土地소유에 유리하다는 신분적인 유리한 절파 지주를 중심으로 한 지주체적 농업 경제에 의존하고 있던 봉건적인 경제실태로 인해서, 토지의 대지주 집중과 자작농의 몰락을 가져 왔다. 한편 이 당시 부농과 빙농의 격차는 토지생산력의 감축을 의미하며 특수계층의 권력이 강화됨에 따라 토지주가 국가에 바쳐야 할 납세 질서가 해이해지고, 그 결과 국가 재원의 부실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래서 이조후기의 경제 실학파들은 농본주의에 입각하여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토지를 많이 점유하고, 땀흘려서 일을 하여 생산력을 높이려는 일반 농민을 친대하고 양반을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신분적 질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利用厚生學派<sup>15)</sup> 洪大容(1731~1783)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반의 무리는 비록 아무리 심한 곤란과 굽주림을 당하더라도 팔짱을 끼고 편안히 앉아 농사를 짓지 않는다. 간혹 實業에 힘써서 몸소 천한 일을 달갑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모두를 나무라고 비웃어 노예처럼 무시하니 자연히 노는 백성은 많아지고 생산하는 자는 줄어든다. 재물이 어찌 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성이 어찌 가

14) 金雲泰: 「朝鮮後期社會의 解體過程과 政治·行政·文化의 變遷」, 民族文化研究 第五號(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刊, 1971), pp. 4~5.

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능과 학식이 있다면 비록 농부나 상인의 자식이라도 의정부에 들어가 앉아도 외롭될 것이 없고, 재능과 학식이 없다면 비록 公鄉의 자식이라도 하인이 될 줄 한단할 것이 없다.」<sup>16)</sup>

신분적 질서에 의하여 양반과 농민들로 갈라졌지만 이제는 양반층의 양적 팽창으로 일하지 않고 지내는 양반의 신분적 계층을 개혁하여야 할 때라고 시사하고 있다. 홍대용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각을 같이하는 실학자 朴齊家(1750~1932) 역시 邦本인 농업에 힘쓰자면 반드시 먼저 농사에 해로운 것을 없엔 후에 그 나머지 읊은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과감히 신분제도를 철폐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양반의 무리들이 태반을 차지하여 농사를 아주 망치게 하고 앞으로 부녀들이 밭을 갔고 있다(女耕田行)는 것은 이웃 나라에 수치스런 일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농사에 힘쓰고자 한다면 먼저 농사에 해로운 것을 없애야 합니다. 첫째, 선비를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 武年試(정기시험)을 보더라도 大科(문과)·小科(生員과 進士)에 응시하는 자가 10만명이 넘습니다. 10만 뿐이 아니라 이 무리의 부자 형세가 비록 과거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농민을 혹사시키는 자들입니다. 같은 백성이면서 백성을 부리는 데 이르르면 강약의 형세가 이루어지고 강약의 형세가 이루어지면 농사는 더욱 경시되고 과거는 날로 중하게 여겨져서 조금이라도 젠체하는 사람은 모두 과거에 입하고 어쩔 수 없이 농사짓는 자는 밀박닥의 어리석은 사람이고 남에게 부림을 당할 뿐입니다. 이에 그 처자를 데리고 들에서 일에 종사하며 소를 키우고 씨를 뿌리는 일의 반쯤은 부인네가 맡고, 낫으로 베고, 방아에 철구질 하는 일은 모두 부인이 맡은 즉 폐해한 작은 시골 마을에는 방망이 소리가 적어지니 온 나라의 옷은 몸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배운 사내부는 이를 예사로 보고 옛부터 이미 그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sup>17)</sup>

15) 利用厚生學派의 實學者는 洪大容을 비롯하여 朴趾源, 朴齊家 등이고 經世致用學派는 李灝, 丁若鏞 등으로 볼 수 있다.

(趙東一著 韓國文學思想史試論(서울, 知識產業社刊, 1978), p. 245. 참조

16) 「林下經論」內集四 上編 p. 307.

「兩班之屬 雖願連弱餓 拱手安坐 不執來耜 或有 務實勤業 躬甘卑賤者 群譏衆笑 視若奴隸遊民多 而生之者少矣 財安得不窮 而民安得不貧也…… 有才有學 則農賈之子 坐於廊廟 而不以爲潛 無才無學 則公卿之子 歸於輿儕而不以恨。」

17) 「北學議」應旨進北學議疏條.

「今欲務農必先去其害農者而後其他可得而言矣一曰 汰儒計今大北之歲大小科場赴闈者殆過十萬非特十萬此輩之父子兄弟雖有不赴舉亦皆不事農者也非特不農皆能役使農民者也等民也而至於役使則 強弱之勢已成強弱之勢成則農日益輕而科日益重稍欲自好者悉趨乎科則不得不農者下愚而已入役而已於是驅其妻女從事于野洞牛舉趾半屬中閭近刈春碓 単責巾幘則荒村小邑砧磬絕少而舉國之衣不能蔽體矣學士大夫視以為常有若古已然者。」

위와 같이 양반 지배층 즉 선비들이 과거를 응시하여 합격되면 신분을 고쳐 주기도 하지만, 합격 불합격 이전에 과거 응시 자체가 양반 신분을 확증하는 방편이 되므로 과거 응시가 중요시하였던 것이니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인가? 이같이 선비의 기준관념이 고정화되어 양반층의 양적인 증가현상은 결국 양반층 내부에 있어서 생산 경제적인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중전과 같이 양반층이 농·공·상업에 대하여 기피를 하였지만 이제는 그 수적인 증가와 사회경제적인 객관적 여건으로 볼 때 양반층의 농·공·상업에의 참여가 오히려 당시의 현실로는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일상적인 빈곤에서 신분층의 계급은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호서의 민은 절반 이상이 大夫之族인데 빈한 곤궁하며 비록 굽어 쓴더라도 오히려 농·공·상에 참여치 않는다.」<sup>18)</sup>

는 호서의 양반층 기록과 함께 영남지방의 양반도 마찬가지로

「士大夫家의 貧殘이 겉차 극에 이르러 굽어 짐을 나서지도 못한다.」<sup>19)</sup>

고 하니 이 당시의 貧殘士族 내지는 貧士寒儒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존재하였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빈한 양반층은 사회경제적인 추세에 밀려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할 수 없이 농·공·상업에 참여치 않을 수 없는 현상으로 발전하여 갔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같은 양반층의 농업 및 상업의 참여 현상은 사회 신분제의 붕괴를 가장 뚜렷하게 반영되는 애라고 생각된다.

이 당시 대부분의 실학자들마저도 重農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내세워 주장하는 가운데 세습체적인 양반층을 도태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옛부터 벼슬을 하여야 祿을 받아 살 수 있는데 특권적 신분만 세습되고 벼슬 못하는 양반의 수효가 무한정으로 많아 이들은 생활 방편으로서 상민에 대한 수탈을 일삼아 날이 갈수록 농민들은 살 수 없게 되었던 실정이다. 그래서 박제가와 같은 실학자는 양반층 중에서도 遊食양반층의 봉건적 신분관념의 타파를 외쳐서 이조달기의 봉건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茶山(1762~1836)도 당시 양반 신분층의 급격한 양적 팽창에 대하여 저적하였다.

18) 「日省錄」78, 正祖三年 己亥八月二十五日 內子條。

「湖西之民 強半是士夫之族 而貧寒困窮 雖至餓死 而猶不肯爲農工賈」

19) 「日省錄」194, 正祖十年 丙午 一月二十二日 監察條。

「伏以…士夫之家貧殘 漸極或 至於飢餓不出戶」

「중국에는 生員이 있듯이 우리 나라에는 兩班이 있다. 頤亭休이 온 天下가 생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 바와 같이 나는 온나라가 양반이 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양반의 폐가 더욱 심한 때가 있다. 생원은 실제로 과거에 응시해서 생원장을 얻는 것이지만 양반은 문무도 아니면서 허명만 무릅쓰는 것이다. 생원은 오히려 定額이 있으나 양반은 도래체 眼節이 없으며 생원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천이 있는 것이나 양반은 한 번 얻으면 百世토록 버리지 않으며 항차 생원의 폐는 모두 가지고 있음에라.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바는 있은즉 온나라가 양반이 없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sup>20)</sup>

이와 같은 경향은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신분제에 대한 일반의 관념은 종전과는 현격한 차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다산은 天下사람 모두가 다 농사에 종사하는 것을 원하지만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田地를 갖게 하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지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선비에 대해서도 일정한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 원칙대로만 간다면 아무종류 문제도 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대체 선비란 무엇하는 사람인가? 어찌하여 선비는 손발을 놀리지도 아니하고 땅에서 생산된 것을 빼앗아 먹으며 남이 노동하는 것을 삼켜 먹는가? 대체 선비가 늘고 먹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이(利)가 다 개척되지 않고 있다. 늘고서는 곡식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또한 장차 직업을 옮겨 농사를 짓을 것이다. 선비가 직업을 바꾸어서 농사꾼이 되면 땅에서 나는 利도 개척되고 선비가 직업을 바꾸어 농사꾼이 되면 亂民이 없을 것이다.」<sup>21)</sup>

라 하면서, 農으로 전업할 수 없는 자는 상·공업이라도 전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閻田論을 구상하게 된 것은 游食人을 없애는데 目標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추세에 따라 1800년대 이후부터 양반층이 농

20) 丁若鏞：「丁茶山全書 上」292, 跋顧亭林生員論條.

「中國之有生員 猶我邦之有兩班 亭林憂盡天下而爲生員 若餘憂通一國而爲兩班 然兩班之 弊尤有甚焉 生員實赴科舉 而得茲號 兩班拜非文武 而冒虛名 生員猶有定額 兩班都無限節 生員世有遷變 兩班一獲 而百世不捨 况生員之弊 兩班悉兼而有之哉 虽然若 餘所望則有之 使通一國而爲兩班 卽通一國而無兩班矣」

21) 丁若鏞：「經世遺表」田論五.

「夫士也何人士 爲游手游足吞人之土食人力哉夫其有土之 游也故地利不盡謫也知游之不可以得穀也則亦將轉而緣南畝矣土博而緣南畝而地 利闢土轉而緣南畝而 風俗厚土轉而緣南畝而亂民息矣」

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감을 볼 수 있고<sup>22)</sup> 양반층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소작권까지도 이를 쟁탈하여 싸움을 서슴치 않던 사태가 전개되는 사실을 볼 때 조선후기의 신분제 붕괴의 한 단면을 살펴 수 있다.

특히 정조時代에 와서는 신분질서의 붕괴를 개탄하는 양반층의 호소가 나오기 시작하여 외형상으로는 반상의 구별조차 곤란하여지는 현상으로 발전하는例를 들어 본다면

「문장은 귀천을 표시하는 것인데 무슨 까닭인지 근년 이래로 文服이 문란하여져 小民賤隸가 갓을 쓰고 道袍를 입는 것이 마치 朝官士夫 모양과 같으니 진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심지어 시전(市蜃)의 상인배들과 行伍의 역을 지는 상민들까지도 서로 양반이라 호칭합니다. 양반의 칭호는 동서반의 직을 이르는 것인데 어찌 조판도 아니요 士大夫도 아니면서 양반칭호를 冒占할 수 있겠습니까?」<sup>23)</sup>

「시정의 무리들이 서로 양반이라 호칭합니다. 朝士의 巾인에도 吏隸들이 어렵지 않게 쓰고 다니며 도포는 유생의 옷인데도 상인배들이 입기를 보통으로 합니다. 常賤이 士夫를 육하고 노비가 상전을 배반하는 일이 상습화 되었으며 외방에서는 鄉品賤類들이 모두 사족에게 抗禮를 한다.」<sup>24)</sup>

는 현상으로까지 신분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이같이 양반이 미만해져 신분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은 양반층 자체내의 팽창도 기인하겠지만 상인 및 노비층이 양반층으로의 상승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sup>25)</sup> 심지어 후기에 오면 양반신분을 가진 자가 오히려 부유한 상민에게 장가들기를 바라는 사실에서도<sup>26)</sup> 우리는 생활에 궁핍한 양반층의 처지와 빈한 양반이 부유한 상민에게 乞粗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sup>27)</sup> 시대흐름에 따라 士大夫는 대개 유량지식인화로 전락하게<sup>28)</sup> 되자 그들의 사회 경제

22) 「全羅監營啓錄」道光九年(1829) 十一二十月一日條.

23) 「日省錄」194, 正祖十年丙午 一月二十二日 丁卯 武兼徐泰修所懷條.

『文章所以表貴賤而夫何 近年以來 文服紊亂小民賤隸 聰帽道袍 有若朝官 士夫貌樣 固已萬萬寒心 而甚至於 市蜃之民 行伍之類 相呼以兩班 夫兩班之稱 謂其東西班之職也 豈有非朝官非士夫 而冒占兩班之名者哉』

24) 「日省錄」131, 正祖七年癸卯 六月二十日 庚辰 京外正名分條.

『市井之徒 互稱兩班 聰帽朝士之巾 而吏隸着之無難 道袍儒生之衣 而商僧服之如常 常賤之詬叱士夫 奴婢之背叛上典 看作例習 至於外方 則酒品賤類 皆欲抗禮於士族』

25) 鄭奭鍾:「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崩壞」, 大東文化研究 第九輯(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72), pp. 303—306.

26) 「岐陽文牒」十一月初四日 李益采女獄事條.

27) 「日省錄」600, 正祖二十二年 戊午 五月二十二日 命木川囚沈淵永加刑減死決配條

28) 註 25. pp. 316—317.

적인 몰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8~19C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사회신분제의 붕괴현상을 당시 사회 경제적인 추세에 따라 변모하고 생성된 현상이니 만큼 이조 말기에 이르면 농민봉기와 같은 농민운동이 신분제를 붕괴시키는 큰 요인이 됨다고 하겠다.

### 3. 農夫歌의 内容

이상과 같은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농민층이 분화되면서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질로 인한庶民意識의 한 단면이 19C末에 와서 본가사의 내용에서 투영되었다고 본다. 主로 농가를 소재로 하여 지은 운문적인 장편 가사로서 특권 계급층의 토지획득 경영에 따른 현실 고발과 저항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이조시대의 지배층을 中心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질을 가져오면서 신분계층을 붕괴시키는데, 농사일로서 직접 행동화했다는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다시 말해서 선비 출신의 작자尹禹炳은 농민과 生活하면서 수탈자에 대한 고발과 저항을 농부가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의 상승적 변화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 내용도 순한 글체로서 이조 말기 농촌의 궁핍상과 농부의 천대함을 일일이 밝히고農家の 生活相을 主題로 하여 時俗의 賤農사상을 경고하는 作品이다. 이 가사의 작자가 평민이 아니고 양반출신으로서 내용이 교훈가사 유형에 속하지만 19C 이조 말기의 貧賤한 농민들의 생활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친 좋은 자료라 하겠다.

#### (1) 모순된 重農思想과 身分層의 自覺

봉전지배층의 농민수탈과 관련하여서 농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 당하여 소작농민의 지위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에는 토지 소유권을 위해서 수탈자에 대한 직접 대결로 行動化한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甲午농민전쟁의 中心지역이었던 全州, 金堤, 扶安, 沃溝 등지에서 토지 소유권을 발생한 농민의 抗爭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哲宗 1<sub>3</sub>년(1862) 2月부터 11月까지 9개월간 20여회의 대 소민란이 일어났고 高宗 元年부터 同 31年 5月까지는 50여회의 농민의 亂이 봉기하였으며, 그 중에도 1862년의 진주민란과 1894년의 동학난을 대표적인 例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농민의 난은 결국 수탈자에 대한 고발과 저항심리가 行動化했다고 하겠으나 한편 농촌의庶民 즉 농민들은 개방적인 도시의 서민보다 보수

적인면이<sup>29)</sup> 승하였음을 본가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어와 뱃입니까    밧구경 가즈셔라  
    밧시야 만전마는    구경흘 밧 달은이라  
    우야철리 널은 밧신    부가옹의 구경쳐요  
    기천박 일등양전    속민의 성으쳐라.」

이는 농부가의 서두 부분인데 토지 배분에 있어서 일부 실학자들이 주장하는 均田論은 아랑곳 없이 특권층 즉 부유층만이 토지를 점령하고 농민들 일등양전을 모두 수탈당하고 오직 소작으로 연명하는 농부들의 심정을 그린 것이다. 일찍부터 조선정부는 종농사상을 보급하는 등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편농정책을 적극 시행하였으나 시대적 추이에 따라 토지는 점점 양반지배층의 손에 넘어가고 농민들은 농토를 버리거나 지배층의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되어 그 궁핍한 생활은 말할 수 없었다.

「농소라고 지은것시    죽무담석 가련하다.  
    도지쥬고 장니갑고    왕세거리 턱이없다.  
    분복을 엊지 허리    반만한개 마누라라.  
    규도업다 호령 허니    연지말박 그안인가  
    죽을쑤고 밥을마오    악식이 츄치될가  
    니희교체 안니오타    세간소리 규모로다.  
    가련흘 소 궁가부인    모양을 보단말가  
    집신호싹 목신호싹    결녹바리 결노퇴고  
    출무완군 혼의상의    정구지역 골불해다.  
                                X               X  
이년소리 져련소리    여풀파이 텐져두고  
    구궁지칙 싱각한니    농소밧과 더인난가  
    천불능궁 역식가라    역식을 헤여셔라  
    소평의 외도노코    벌히의 졸도십어  
    먹지말고 돈을수면    가간일용 뇌눈이라  
    상마우로 견평천의    상목십고 삼을갈면  
    위치위격 웃실지여    구월슈의 돈니들가  
    탁기듯실 실시마소    노친봉양 찬물된드

29) 柳鐸一：朝鮮後期 歌辭集 나타난 庶民의 意向，淵民李家源博士 六秋頌壽紀念論叢(1977)，p. 67.

호조벼와 호되곡식	성겨 날곳 심이들고
호술밥과 호잔술도	공이 쥬리 업눈이 라
호풀두풀 남용마소	에셔결노 성계 날가
너의십을 남뵈이고	남의십을 빗지탈소
농수흘써 안나라도	경영비포 농수로다.」

임병양란 이후 人心은 날로 피폐해지고 토지는 私田확대 경향으로 특수체 층의 토지를 넓게 차지하므로 농민들은 토지를 상실해지고 소작인화되어 농민의 생활은 궁핍화되어 극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마 납은 토지에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봐야 도지주고 장티갈고 나면 다음 추수 때까지의 생계가 암담해지는 현실을 위의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 소작인인 대부분의 농민들은 한 해를 살아나갈 財貨가 없어서 매년 춘궁기를 당하여 씨앗과 農糧을 모두 私債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것은 곧 농촌은 만성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농민들은 실제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방편으로 私債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私債는 제한으로 농사 짓는 농민보다 오히려 이조 말기 때 貧殘土族들 사이에 더욱 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양반사족들은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불합격을 산관하지 않은 채 양반신분에 위치하여 팔장을 끼고 농사짓지 않으면서 농민을 혹사시키고 같은 백성이면서 백성을 부리는 강약의 형세가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에 낙방한 貧士寒儒들은 사채가 늘고 급게 되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는 신세가 되었다.

농수못호 궁호선비	괴석이 쳐랑마다	
춘초민정 임하옥의	가도소벽 웬이로다.	
궁불능존 호전마는	유업종소 본분이라	
손비비고 끌려안조	시서빅가 일숨은니	
부모쳐즈 괴한중의	선영제소 봉향훌가	
×	×	×
김급제며 니급져는	소쥬팔조 달네먼지	
장안터도 흥진속의	실니위 블여간다.	
나오던날 용몽걸몽	이제와서 허스로다.」	
×	×	×

30) 註 21.

·<16>嶺南語文學(第5輯)

낙방거 조 헝식보소 측장집고 당해신고  
안식초체 쇼씨지며 다리결녹발 불웃고  
울느갈체 당당세미 니려울체 간덕업다.  
집의라고 도라든니 부모굽고 치즈굼너  
농소일홉 안지은니 츄모답색 가련하다.  
양식췌티 흐여보라 이집가고 저집간들  
여전여록 잊는사람 실부실을 알리쥬니  
갑풀여당 업는수람 무얼보고 빛실줄ما  
낭패하고 도라오니 그정식을 볼수업다.]

이조 후기 양반층의 양적 팽창으로 벼슬 하지 못한 낙방선비는 오갈데 없이 농촌으로 돌아 오게 마련이다. 초기에는 농업을 기피하고 천대시 하였지만 이제는 양상이 달라졌다. 처자식이 끓고 부모봉양이 눈앞에 닥쳐와 현실로는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빈곤에서 양반층의 신분계급은 붕괴되고 벼슬 못한 양반이 무한정으로 늘어가고 한편 특권층의 신분이 세습되어가는 반면 遊食 양반층은 스스로 깨달음을 볼 수 있다.

소소빗도 만켠이와 공납인들 흐여시랴  
날노문전 식천리노 이것쥬쇼 저것쥬쇼  
가인산업 도로고셔 을련독좌 글만흐면  
단상학발 잡지지공 무얼가져 흐존랄가  
의관서최 전펴흐고 농가조류 뢰리로다.  
보던최을 접펴너코 쟁면갓실 놉피달고  
지케을 지고본니 우술고도 한심하다.  
죽을죄을 지어든가 뒤쭉지을 결박호듯  
함진아비 비양인지 허리어이 쇳꽃호가.

×            ×            ×

괴한을 못참어서 농가조류 뢰단말가  
잡영세가 조손으로 영소언정 농부되야  
붓더잡든 고혼손질 홈의목이 엔일이요.  
관옥갓튼 고혼얼풀 철식갓치 접어지고  
의관경제 흥던몸의 봉두난발 츄마흘가  
약불승의 연연약풀 고된침을 만니지니  
엑키어이 노파자고 등은어이 구버지나

괴한성염 풍우중의 진날진날 갈이잔코  
장습니수 짹을지여 오락가락 보기실소.

세습제에 의한 양반 선비들이지만 놀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의관과 책을 모두 거두어 버리고 농사일에 전업하는 모습이다. 茶山은 일찌기 선비들이 농업에 전업하면 地利가 關하고 풍속이 厚하여 亂民이 종식될 것이다<sup>30)</sup>라고 한 바 있다. 양반신분이 세습제이지만 과거에 낙방하면 곧 游食人이 된다. 이러한 낙방한 선비들은 당시 사회를 위한 혹은 농·공·상업의 실리추구를 위한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농업을 천대하고 농민을 침해하는 사회정화의 저해요인이 되는 무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비층의 유향 지식인들도 점차 농업에 서슴치 않고 참가하고 빈한한 양반이 부유한 평민에게 租借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현상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아 온 바 말기의 모순된 중농사상과 양반 신분층의 자작은 개인의 출세와 부귀영달을 위한 고정된 전통적 관념은 점차 근본부터 변질을 가져오기 시작하여 行動으로 옮겨지고 있다. 現實을 직시하고 그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비판의식이 비록 규모가 적은 각종 민란으로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곧 농민을 착취하고 농업을 천대하는 신분사회에서 존재하는 본능적인 행동이라 하겠다. 그러나 농업은 이 나라의 근본이요, 봉건社会의 제왕도 지대한 관심을 갖는 종묘사직의 기반으로서 끝내 천대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신분제 봉과와 함께 농민들의 손에 피폐하지 않고 지켜왔다고 하겠다.

## 2. 農業에의 執念과 安定追求

이조 후기의 농업생산은 지주제적인 형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일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당시 농민들은 남의 토지를 경작하면서도 어디까지나 實生活의 安定을 두한히 바라고 있었다. 누구나 토지의 지주로부터의 착취와 피폐한 농토에서 적은 수확량에 경제적 빈곤은 갈수록 더하여 갔을 것이고 농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생활의 불안정과 지배층의 수탈에 못 견디어 낸 농민들은 신분계급층에 대한 불만과 불신 속에서 억눌려 살아야만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과 불신의 근원은 곧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가에서도 안정된 실생활을 추구하는 집념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배층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직업의 천대를 감내하면서까지 富에 대한 希求心은 날로 더하였다.

## <18>嶺南語文學(第5輯)

「예로부터 궁경중의 성현군조 만천만논  
금세상의 농부들이 선비궁경 아둔달가  
실푸드 벗임니야 입입신고 들어보소  
동지영야 진전밤의 잠을이어 드줄손가  
소이삭도 쇠기쓰고 주이우모 나리역거  
승우을 굽펴호소 시과박꼭 흥눈이라  
시벽서리 찬발암의 손을불며 거름죽고  
서소황양 야용이라 용조상져 방아썩키  
부모침소 넝돌될가 후산니쵸 나무후기  
일출소성 흐여신니 일시라도 평안흘가」

농번기의 농부들은 일시도 쉬지 못하고 바쁘다. 농사일이란 세시에 따라  
년중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달의 일은 빠트리지 말고 힘써 할 것을 강  
조하면서 보다 잘 살고 많은 소득을 내기 위해 근면한 생활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농가에 있어서 부녀자의 겸근절약한 마음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힘이  
지극히 크다.

『가빈의 소현쳐라 안 규모을 경제호소  
양식먹기 허피호면 부조라도 탕피호리  
생가호는 부인니는 양식을 경이먹고  
폐가호는 부인니는 양식먹기 혐이호다  
쫄을쥬고 채소먹기 쫄을쥬고 반찬수며

×            ×            ×

붓쳐의개 불공호고 무당불너 비손호기  
술강밋틔 쇠밥덩이 이리궁글 져리궁글  
천만색이 씨어신들 이러호면 진일손야  
반찬소기 과명소기 외정처분 미더두고  
붓쳐불공 무당비손 구슈갓치 멀니보고  
먹던밥이 남어거든 쥬린소랄 적션호고  
집안식구 적식구을 덕종호여 밥쫄니소  
노심노력 지은농소 일홉일소 허비흘가  
절식절용 흐고보면 남의빛실 져기질리  
일연농소 쳐다호되 절식호면 계량되고  
일연길숨 죽이히도 소입즈면 져지안타  
세간소리 터결목이 먹기입기 제일이라

널먹즈면 한니업고 줄입즈면 할니업다  
 의취피체 몸가리고 식혜충복 양치기라  
 그깟괴야 더구휼가 제분슈의 넘어가리  
 궁소남의 소인되기 그안니 두려울가  
 악의 악식 슈치말고 너분슈을 쟈라호소  
 열름의눈 마포의와 겨울의눈 보병의라  
 농부몸이 되야셔라 제분슈의 지나갈가」

장황한 인용이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농가에 있어서의 생활의 윤색은 살립살이하는 부인네의 근검절약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가난한 생활이지만 절약하고 겸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안정된 생활에서 제선 봉친하고 오직 농업에 힘쓰는 일 뿐이다. 이러한 생활은 결국 富에 대한 一念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富에 대한 염원을 위해 오직 上代부터 퀸농사상을 강조하여 왔던 것이다.

이조의 士大夫들은 전형적인 양반의식 속에서 정통성의 사고로써 어디까지나 君主에 대한 충정을 표시하였지만 농민들은 언제나 농사일에 전념하면서 임금의 은덕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농업이 天下의 大本임을 자각케 하였던 것이다.

「이농수을 힘써지여 나랑상습 흐온후의  
 앙소부모 돋져흐고 부흙쳐즈 흐여셔라  
 ×            ×            ×  
 앙소부모 부육쳐즈 남파갓치 흐여셔라  
 봉제소와 접빈직을 지성지경 다들려라  
 시제고제 결일초례 혼번인들 월향홀가  
 조손청성 업소오면 조상신령 흠향홀가  
 보본지의 모도오면 조손향복 발일손야  
 슈달피는 보본흐여 어별의게 제소흐고  
 서미도 보본홀풀아라 최작의게 제소흐니  
 하물며 인성되야 져눈근본 물을손야  
 괴명을 작말흘제 제괴붓터 먼저쓰고  
 전답을 산다희도 제위답을 본져쓰고  
 츄수동장 입고흘제 제수미을 벌노두소  
 갈역경전 조식노릇 노친봉양 일을숨아  
 비육불포 육미붓치 비빅불는 명죽웃술

## <20>嶺南語文學(第5輯)

성품맞게 공양호제 양지니 죽 이질서라.」

일년 농사 추수 후 天恩을 생각해서 백성으로서 임금에게 은덕을 생각하고 나라에 세금을 낸 후 자기 조상을 모시고자 했다. 이 부분은 五倫勸勵의 뜻이 포함된 것으로 부모온혜, 부모봉양, 봉제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손된 입장에서 도리를 잊지 말기를 강조하는 일면을 역역히 볼 수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 농사일을 부지런히 하여 국가의 재력을 넉넉하게 하여 國泰民安하고 아울러 國家奉用과 祭先奉親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달른쇠는 별노업고 능소밧고 업눈이라  
천하더본 그안인가 죠고제왕 중히안나  
천조격전 권룡이요 황후친잡 가라친니  
하물며 백성되야 무본식역 못흘손야  
규모업시 못소는니 절식절용 부디호소  
괴한도꼴 불고염치 무소불위 가의로다  
근리시티 야속호여 비양농부 천티호다  
만세만세 창성덜아 농부천터 부디마소  
만일농부 업소오면 나라종묘 엇지호리  
초야야인 업소오면 군조을 길을손야  
야인군조 상조되기 중언부언 바라노라.』

농업은 天下之大本으로서 나라의 근본이요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생활터 전을 삼고 있다. 사회에서 농부를 천대하고 있지만 농업은 대대로 내려오는 萬事之本으로서 농민생활의 안정 추구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신분층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농업을 천대당하여 웃지만 이에 뜻을 굽히지 않고 오직 농업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힘을 쓰는 가운데 종묘사직은 굳건해 지고 농민들의 생활도 안정된다는 것을 믿었다.

지금까지 위정자들은 중농정책을 근본으로 하여 농민들에게 농사를 권장하여 웃지만 후기에 오면서 시대 추이에 따라 양반도 이에 종사하는 일면을 보았다. 그러나 일부 양반 신분층들이 농민들에게 소작을 내어 주고 칙취와 수탈을 일삼았지만 농민들은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오직 농사를 힘써 지어 현실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이조시대의 대다수의 농민들은 국가의 는노를 포함하여 豪富之民의 사적예농이 되어 모순된 사회질서 속에서 견디다

못해 농민들은 도시로 도망하거나 도적으로 변하여 이조 후기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곧 당시 지배기구의 부패로 인한 사회경제적 곤란 및 불안이 확대 누적되고, 농민들이 농사기피로 인하여 순조시대는 완전히 쇠퇴의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농업은 농민들의 실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기본산업으로서 국가의 재원이 되었던 것이나 일부 양반관료 지배층에 의하여 많은 토지를 점령 당하고 貧賤한 선비마저 생활의 궁핍이 심하게 되자 신분계층은 봉괴되면서 서민의식의 변질과 함께 백성들은 농사로서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게 되었다. 본가는 다른 농부가에 비교해서 이조 말기의 피瑗한 농민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동시에, 신분제도의 봉폐를 암시하는 새로운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당시 서민의 의식을 확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의에도 傳來의 세시 풍속과 농촌생활의 관련된 농번기의 농촌생활 묘사에 대한 부분은 농가월령가<sup>31)</sup>와 비슷하기에 여기서는 略한다.

#### 4. 結論

이상에서 19C를 전후한 시대적 배경 설명과 함께 후기 서민의 의식 변천을 중심하여 농부가에 나타난 내용을 살폈다. 이조 후기의 서민은 대다수 농민들로서 그들은 봉건체제가 그동안 누적된 모순 속에서도 전래해오는 중농정책에 순응하여 나라의 기본산업인 농업생산에 힘쓰면서 한편 생활의 안정을 추구해 온 자들이다. 그러나 양반 지배층의 토지 확대 점령과 함께 농민은 소작인이 되어 곤궁한 생활이 계속됨에 따라 지방에서는 대소의 민란이 일어났다.

조선조 후기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동이 많은 시기요, 말기에 와서는 봉건체제의 모순이 드러나고 양반 신분계층이 둘락화되면서 근대화 방향으로 나가던 시기다. 정치 및 경제적인 측면으로 화폐가 유통되면서 상업주의적인 농업정책에 따라 지방 관리와 지배층의 수탈과 착취가 어느 때보다 심하게 되고 사회적 변동의 흐름에 따라 서민의 의식은 현실안정이란 실리면의 추구를 지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지배계급층의 신분면화와 함께 서민의 의식을 다음과 같이 농부가

31) 拙稿：「農歌月令歌에 對한 考察」，嶺南語文學 第2輯(嶺南語文會, 1975), pp. 11—40..

를 통하여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19C 이후 현실의 불안정과 함께 신분제층에서도 농사일에 종사함을 보고 지은 퀸농가다.

옛부터 농업생산은 백성들의 기본생업으로서 국가의 재원이 되고 서민생활의 터전이 되었다. 그래서 18, 19C 이전에는 퀸농시가가 드물었으나 후기에 오면서 퀸농가류의 시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곧 조선조 말기에 가까와 을수록 현실의 모순으로 농업이 천대를 받고 농민들의 곤궁한 생활이 갈수록 심해져 농민층은 분화가 되기 시작하자 후기 실학자들과 뜻있는 지방의 유생들은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한편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면서 중농사상을 강조하는 퀸농시가를 지었다고 하겠다. 본가사의 작자 역시 서민적인 입장에서 현실의 모순에 대한 저항의식, 貧賤한 선비의 생활상과 충효·봉양·퀸농사상 등이 함축되어 나타나는 퀸농가라 하겠다.

둘째, 農에의 집념으로 현실안정을 추구한다.

신분지배층의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적절적인 대항보다는 농부들의 천대와 신고를 무릅쓰고 자기들의 실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집념과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개인의 富를 축적하기 보다는 국가에 납세하고 제선 봉친한 연후에 균겸과 절약으로 자기들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염원인 것이다. 그리고 양반제급의 양적 평창으로 인하여 농촌지방의 선비층은 시대의 추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자 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신분제급의 봉파와 함께 일반 서민들의 편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의식의 발로라 하겠다.

끌으로 본가사의 작자는 지방유생이었지만 그 교훈적인 가사내용이 하향적(下向的)인 것이 아니고, 과거의 농촌의 피폐한 상황과 현실의 모순 속에서 생활안정을 추구하려는 퀸농의 자세로서 賤農思想을 경고하고 일깨워 주려는 창작의도에서 나온 작품이라 하겠다.

이 작업을 통하여 農夫歌 이외에도 농촌적 성향을 띤 농민가사<sup>32)</sup>가 제목을 달리 하여 많이 나타난 것을 알았지만 여기에 대한 고찰은 다른 기회로 미룬다.

32) 여기에 속하는 가사로는 合江亭歌, 居昌歌, 愚夫歌, 기음노래, 治產歌, 明堂歌等을 들 수 있겠다.